

또 공무원 비리...광산구청 도덕불감증 심각하다

불법건축물 사전사용 인허가 대가 금품·향응 6명 적발 1년도 안돼 18명 적발...수차례 실시한 청렴교육 헛구호

광주 광산구청이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리 사건으로 '복마전(伏魔殿)이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고 있다.

불과 1년도 안돼 무려 18명의 공무원이 뇌물·직무유기 등의 비리 혐의로 적발돼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수차례에 걸친 자체 청렴교육에도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복(公僕)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소 귀에 경읽기'라는 비판도 거세다.

◇연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비리 지뢰밭? =광주지방경찰청은 25일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사용승인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

의(뇌물수수 등)로 광산구 소속 공무원 A(49·6급)씨에 대해 사전건축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B(43·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 차례에 걸쳐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C(35·8급)씨 등 4명을 적발, 해당 구청에 통보, 징계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울러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유혹업소 등에서 향응을 제공한 건축감리사 D(38)씨, 허위감리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시공업체 부사장 등 3명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9시30분께 광

주시 서구 한 음식점 앞길에서 광산구 수완지구 26세대 고급빌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사 D씨에게 사전사용승인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사·재판에 걸쳐 현금 1300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6시20분께 광산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에서 감리사가 A씨를 통해 보낸 현금 100만 원을 건네 받고 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완공률이 80%인 해당 고급빌라에 대한 사용승인허가를 내줬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인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부가 먼저 발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자량을 불

법으로 증차해준 뒤 관련법에 따라 화물 협회에 통지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의 혐의(직무유기 등)로 소속 공무원 12명이 적발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1년도 채 못되는 기간에 공무원 18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셈이다.

또 업무 가중과 인력난을 내세운 안일한 업무 처리 때문에 불·탈법 비리 행위를 막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 경찰은 지난해 4월 불법으로 원료를 허가면적 이상 늘린 건축주와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건축주와 건축사 140여명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 건축주와 건축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에도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할텐가 =광산구의

경우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이 잇따르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만 사이버 청렴교육(4회·174명), 청렴특별교육(1회·400명)에 이어 올해도 8차례의 사이버청렴교육(640명)을 진행했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아 '헛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나마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조치를 늦춰 자칫 해당 분야 업무에 대한 불신감도 구청 안팎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 때문에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와 피부에 외눈박이 청렴 대책 등으로 공무원들의 자정 노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통사고 낸 뒤 편의점으로→
소주 한 병 사서 끌켜→
음주측정했더니 0.169%→
운전자 "사고 직후 마셨다"

음주운전 잡아떼니... 경찰 "참 난감하네"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고 직후가 아닌 사고 직전에 이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 김모(48)씨는 지난 23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무등로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박모(20)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800m 떨어진 M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한 뒤 현장 주변에서 술을 마셨다.

음주측정 결과,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9%.

하지만 김씨는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사고 직후 M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선 딱 잡아땀다.

경찰은 정황상 김씨가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 운전자의 이동로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기웅 수사기자 pboxer@

"누구는 교장 시켜주고 누구는 교감으로 돌아가라고?" 광주 공모교장 인사 뒷말 무성

4명 중 1명만 교장으로 발령 교장공모제 유명무실 지적

"누구는 교장 시켜주고 누구는 교감으로 돌아가라던 누가 공모교장에 지원하겠습니까? 또 그 기준을 누가 믿겠어요." 4년 임기를 마친 공모교장의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광주시교육청이 4명의 공모교장 중 3명을 교감으로, 1명을 교장으로 발령냈기 때문이다. 3명에 대해 사실상 강등 조치한 셈이다.

교단에서는 가족이나 지원자가 적어 결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 정기 인사에서 공모교장 임기가 만료된 4명의 교장 중 3명을 교감으로 발령했다.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공모교장을 맡았던 이들은 공모교장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번엔 교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중 1명만 초임교장으로 발령나고, 나머지 3명은 이전 직위인 교감으로 돌아갔다.

이번 인사는 광주시교육청이 공모교장의 경우 4년 임기가 끝나면 임용 당시 직위로 복귀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9월1일 발령되는 공모교장 전원은 4년 뒤 교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인사지침을 세웠다. 그동안 공모교장의 임기를 마치면 초임교장으로 승진 임용하던 관행을 적용하

지 않겠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 제도가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려는 기간을 줄이거나 교장 재직 기간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모교장들은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공모교장에 지원했을 때는 당연히 교장으로 승진하는 구조였던 데다, 앞으로 공모교장들 대부분이 교감으로 되돌아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지 않아도 결되고 있는 공모교장제가 더욱 외면받을 것이라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모교장을 했더라도 교감으로 되돌아가면 이때부터 다시 교장이 되기 위한 근무평정 관리를 해야 하는 탓이다. 실제 지난달 실시한 교장 공모에서 일부는 응모자가 없어 공모가 취소됐다.

학교 현장도 혼란스럽다. 교장 출신의 교감과 현직 교장,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공모교장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학교 현장의 변화와 활력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발탁의 의미도 없고, 누구는 교장 누구는 교감 등 인사기준도 모호한데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하반기 교원·전교조 인사에서 공모임기가 만료된 공모교장 모두를 초임교장으로 발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체육대학 꼭 갈거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3일 시행)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 추석 연휴는 제외된다. 고3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접수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의 교육청에서 가능하다. 25일 광주시 서구 영주동 KAPA체육대학입시학원(원장 박규승)에서 체육 관련 대학·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같은 기간(2012년 1월~2014년 7월) 광주시는 응급헬기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의원은 "응급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이 1차 임무인 만큼 교통, 산악 사고 구조사 산발 등 화재진압 등에 사용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경우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풀려난지 10분만에 또 차에 들턴저
○...승용차에 돌을 던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50대 남성이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청.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서모(55)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향해 보도블록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승객 흉모(여·63)씨의 팔을 다치게 한 혐의.

○...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운행 중인 승용차에 돌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0여 분 만에 또다시 시내버스에 돌을 던졌는데, 담당 경찰관은 "(서씨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어렵지만 범행이 상습적인 점을 감안,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자체 9곳, 귀빈 이동 수단으로 응급헬기 마음대로 사용

전남도를 비롯, 일부 지자체가 응급 헬기를 단체장·귀빈 이동 수단으로 '마음대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헬기(응급헬기) 시·도별 업무 지원 귀빈탑승내역'에 따르면 전남도 등

전국 지자체 14곳 중 9곳이 응급헬기를 '응급' 용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도지사 등의 고향 외나로도 나로호발사 참관, 원시 체험의 섬 방문, 적조지역 예찰, 전국 바둑대회 참석, 신안 불불락 축제 및 F1 경기장 현장 확인 등에 응급헬기를 사용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상가건물매매

7층 사무나 건물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무등 정맥상사 이 7층 건물 사무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임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①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2층 상가건물
대지 205평 1층 100평(전용 70평) 2층 80평(전용 70평) 6칸
매가 2억5천 월 보증금 2천 월 200만원

②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 옆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개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③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④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중심도로 1층)
1층임대 약 80평 시설 완벽 최고 위치 성황리 영업중
식사 및 커피전문점

신한 010-6670-9800

동네 어르신들과 고객들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시티옥사우나

새단장 오픈

(구)도시대중사우나

오픈행사

8.1~9.30까지

3만원 이용시 티켓 13매 무료
6만원 이용시 티켓 30매 무료
16만원 이용시 티켓 100매 무료

경품권 추천

1위 세탁기 (30만원 상당)
2위 무료티켓 (10만원 상당)
3위 무료티켓 (6만원 상당)

직원 구함
여 - 카운터
남 - 청소 및 관리

대신시티빌딩
시티옥사우나

북구 우산동 518-80번지 안보회관 옆

010-6832-9700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뒷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망좋은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엘레베이터 완비, 장판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후문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대신

010-6832-97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산·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린시설

-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토지1735㎡,건2303㎡) 감정 30억6, 최저21억(유통마트적합)
- 서구지평동 상무지구 근린시설(토지1599㎡,건17380㎡) 감정 223억, 최저223억(상무지구 중심가)
- 서구 지평동 근린시설(토지4758㎡,건1478㎡) 감정 276억, 최저276억(상무지구)
-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토지951㎡,건2652㎡) 감정 26억, 최저11억(신안사거리 대로변)
- 북구 오치동 근린시설(토지338㎡,건659㎡) 감정 5억, 최저5억(오치대로변)
- 북구 운암동 근린주택(토지780㎡,건1992㎡) 감정 24억, 최저17억(대인동 대로변)

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토지112㎡,건200㎡) 감정 3억8천, 최저1억1천(두암동)
- 북구 유동 근린주택(토지229㎡,건608㎡) 감정 1억6천, 최저2억6천(유동 대로변)
- 동구 충정로 근린주택(토지155㎡,건454㎡) 감정 3억4천, 최저1억9천(충정로 530코너)
- 북구 오치 근린주택(토지69㎡,건114㎡) 감정 1억6천, 최저7천4백(오치동)
- 북구 운암동 근린주택(토지69㎡,건114㎡) 감정 1억6천, 최저5천(운암동)
-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토지138.8㎡,건202㎡) 감정 2억4천, 최저1억7천(신안동)

호텔

- 광산구 쌍암동 호텔(토지1182㎡,건2289㎡) 감정 32억, 최저22억(쌍암동 코너)

대지

- 동구계림동 대지(토지511㎡) 감정 6억9천, 최저3억8천(광주공단 옆)
- 광산구 소촌동 대지(토지1956㎡) 감정 20억, 최저14억(광주간도로, 송정역 부근)

경매 직원구함, 부동산 직원구함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항, 설계, 부동산관련 전제를 취급합니다)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등산로 중심도로 점)
보3천 월300만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주)대신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①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신안은행 뒤.모아엘가(상가)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②수완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 하남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월 150 용9천

③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성오션스파) (6층중 2층) 62평(부영APT)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④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2억5천 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⑤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4억2천 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⑥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대340, 전 50 주택 2채 매가 3억1천)

①쌍촌동원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전석 1번 출구 2분(울수리 전체제출 신규교체 임대료,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②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8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③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사비없음)

④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15평(수림)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8천
②10평(수림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⑤북구 우산동 사무나 건물 7층 (대96, 건564) 수익 900 매11억

⑥광산구 오림동 8층 건물(대500천, 건 700) 1층 상가 120평 룸 58개 월수익 2500 매가 35억

⑦신축원룸 4층 북구 용봉지구 룸 21개 월수익 8001층상가 2, 4층 주임주택 매가 11억8천

⑧신축원룸 4층 북구 중흥동(전대정문 2분) 룸 121층 점포1칸, 4층 주택 월수익 500 매가 6억7천

신한 062-521-1060